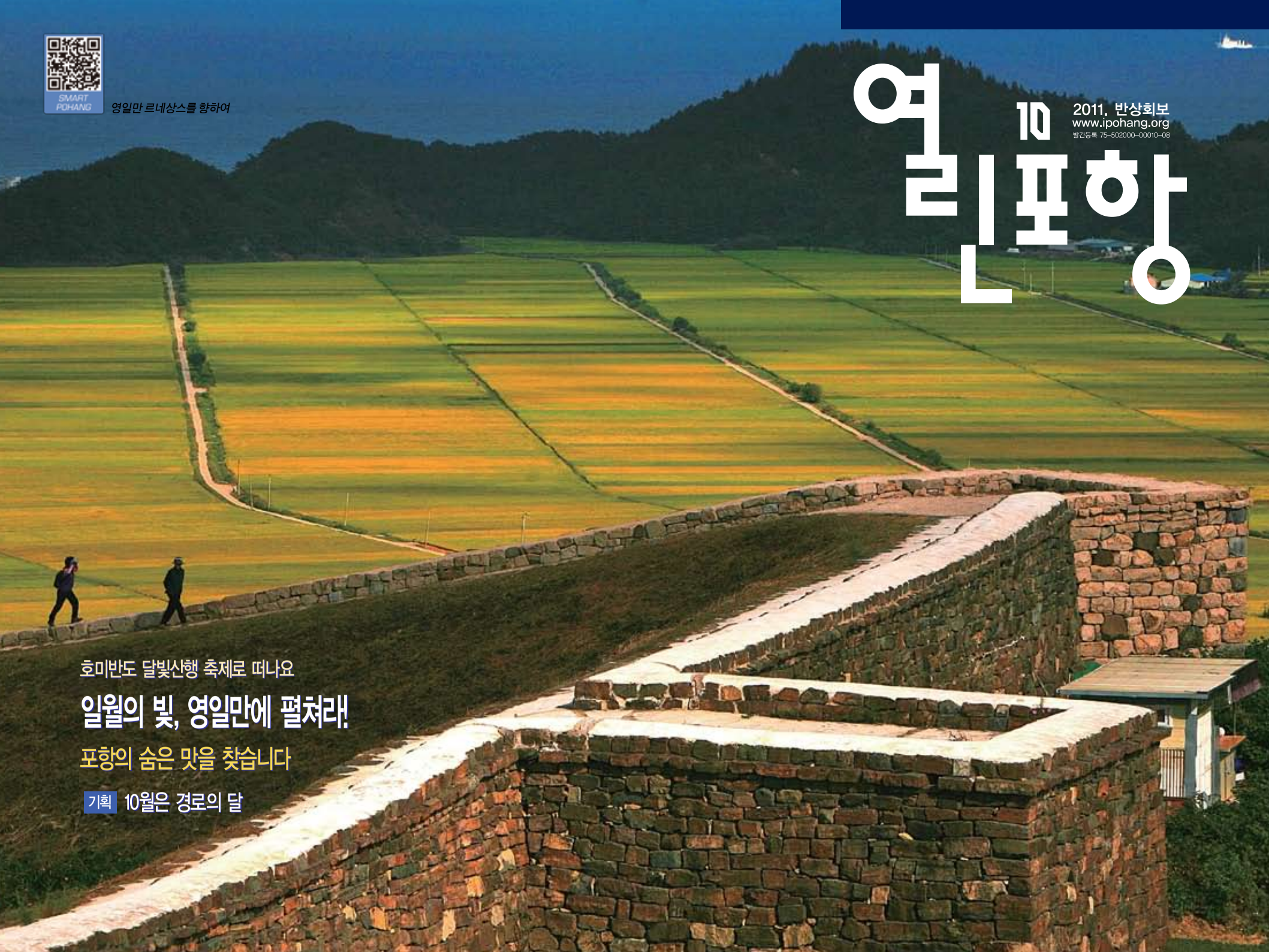


SMART POHANG

영일만 르네상스를 향하여

열린포항

10
2011. 반상회보
www.ipohang.org
발간등록 75-502000-00010-08

호미반도 달빛산행 축제로 떠나요

일월의 빛, 영일만에 펼쳐라!

포항의 숨은 맛을 찾습니다

기획 10월은 경로의 달

애물결나비와 허공

여름이 다 가는데 나비야
어쩌나, 가야 할 지평선 너머는
저리도 먼데
가을 수풀에 꽃 찾아 날아와
바람에 실려 나는 애물결나비

애, 애는
애처롭다는 것, 작다는 것

그러나 가을이 깊어 가는데 어쩌나
나비 간다 겨우 간다
애가 탄다
꽃의 마지막 숨결 먹고
곧 스러지고 말 나비야
네가 가고 갈꽃도 가면

한참 동안
허공, 저 혼자 심심하겠다

이종암 1965년 경북 청도 출생. 1993년 《포항문학》으로 등단. 시집 『물이 살다 간 자리』, 『저, 쉼표들』, 『몸꽃』

Powerful Pohang은 화합과 개척의 포항정신으로 미래를 향해 힘차게 약진하는 역동의 도시를 의미한다.

열린포항

www.ipohang.org

●● 09

●● 10

●● 11

●● 21

10 2011 CONTENTS

04 **특집** | 제9회 일월문화제

06 **맛있는 포항** | 2011 포항 맛 경연대회

07 **포항장** | 죽도시장의 새벽을 여는 번개시장

08 **기획** | 10월은 경로의 달

10 **문화** | 아트웨이 프로젝트 외

12 **문화칼럼** | 문화, 영일만에 빛나라

13 **가을여행 Ⅰ** | 제1회 운제산문화제

14 **포항스토리텔링** | 천곡사 돌우물

16 **시정브리핑** | 12월부터 동빈운하 판다 외

19 **의정브리핑** | 제178회 임시회 주요 의정활동 외

21 **가을여행 Ⅱ** | 구룡포 장기 목장성 올레길 따라

22 **포항사랑** | 2011 연일 부조장터 문화축제 외

23 **갤러리** | 노송09-2

장기면 읍내리 장기읍성 모습.
읍성 너머 장기들녘에 가을이 익어가고 있다.
사적 제386호인 읍성은
고려 현종 2년(1011)에 여진족의 해안 침입에 대비하여
쌓은 토성이었으나 조선 세종 21년(1439)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여 석성으로 재축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성적 읍성으로 매우 귀한 존재이며,
보존상태가 좋아 읍성 연구에 귀중한 유적이다.

표지사진 · 박준호

발 행 처 | 포항시
발 행 인 | 포항시장 박승호
편 집 인 | 홍보담당관 이점식
편집담당 | 홍보담당 장숙경, 박주영
담당주소 | 790-72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1(대잠동 1001) 054)270-2233
발 행 일 | 2011년 9월 25일(통권 제98호)
기획·편집 | (주)금강미디어 054)275-0558
인 쇄 | 성광인쇄 054)283-2162
홈페이지 | www.ipohang.org 열린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제9회 일월문화제 日月文化祭

일월의 빛 영일만에 펼쳐라!

포항을 대표하는 문화축제인 일월문화제가 10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해도공원, 문화예술회관, 중앙아트홀, 중앙상가 실개천 등에서 펼쳐진다. 아홉 번째 맞는 이번 문화제는 '일월의 빛, 영일만에 펼쳐라!'를 주제로 해[日]와 달[月]을 상징하는 연오랑세오녀의 일월사상을 중심으로 빛과 희망의 일월정신을 영일만에 밝히고, 포항의 광명정대 정신과 개척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물론 지역의 통합과 시민의 화합을 구현해 명실상부한 지역 대표문화제로 발전시켜 나간다.

개막식, 빛과 희망의 일월정신을 영일만에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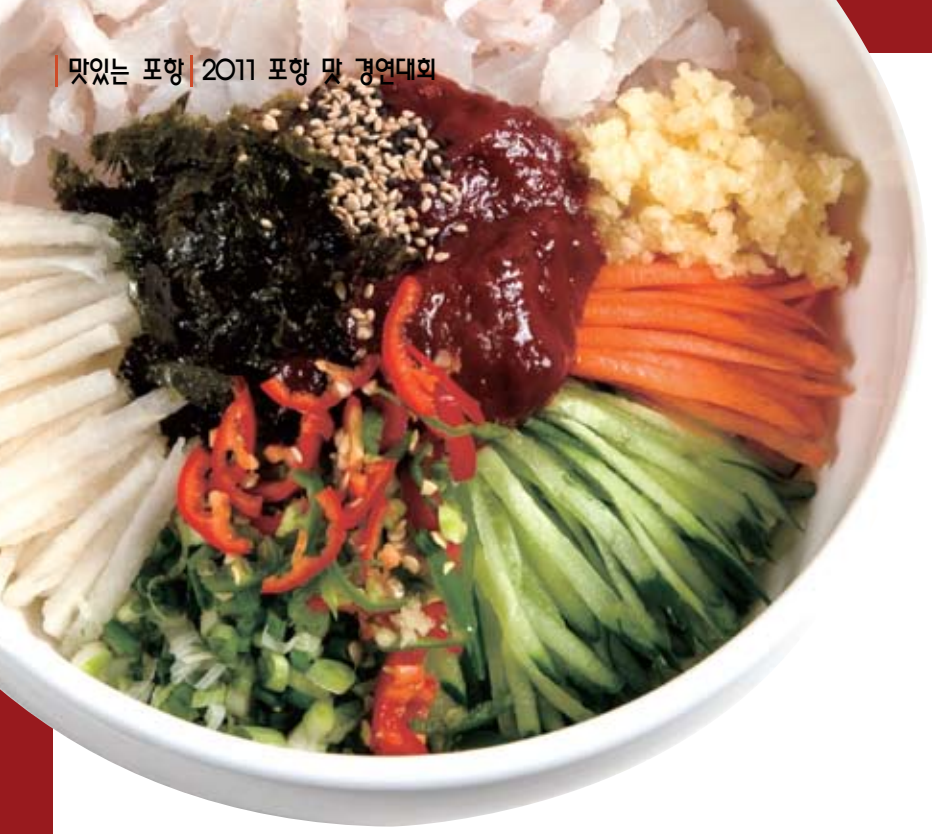
10월 5일 오후 2시부터 시청 대잠홀에서 전야제 행사인 제16회 연오랑세오녀부부 선발대회에 이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15분까지 해도공원에서 성대한 개막식 행사가 치러진다. 창포초등학교 국악단과 대북공연팀의 하늘을 여는 식전행사에 이어 일월문화제 시작의 빛맞이, 다문화행복동행 선언 등 공식행사로 진행된다. 이날의 하이라이트가 될 식후행사는 일월한마당 축제로 진행된다.

포항소년소녀합창단 공연에 이어 다문화 여성으로 구성된 다소리세오녀합창단 공연과 부덕사 민요팀의 국악한마당, 모포리 주민들의 모포줄다리기 시연, 일월문화 도전골든벨, 29개 읍면동이 참여하는 모포줄다리기, 33개팀이 참여하는 일월문화 풍물제 등의 순으로 구성된다. 이어 좋은사람들의 밴드공연과 시상식을 마지막으로 개막행사를 마무리한다.

일월한마당 축제가 될 제8회 일월문화제 주요행사 일정표

구분	행 사 명	일 정	장 소	행 사 내 용
주제 공연	연오랑세오녀 국악뮤지컬	10.7 – 10.8	문화예술회관	연오랑세오녀를 연출한 최초의 국악뮤지컬(대공연장)
	일월무용제	10. 9. 15:00	해맞이공원	포항 무용인들이 참가하는 창작 일월 무용제
	일월음악제	10. 9. 19:00	중앙아트홀	대중 장르를 소재로 화합의 음악제 구성
	창포국악대향연	10. 7. 19:30	시청 대잠홀	창포초등학교 어린이들이 펼치는 국악대향연
	일월 Rock을 樂하라	10. 9. 18:00	중앙아트홀	지역 직장인 밴드동호회가 참가하는 7080 및 락페스티벌
	일월아! 함께 놀아보자	10. 8. 15:00	실개천	비보이공연+힙팝+댄스+콘서트 등 구성
	일월문화거리 콘서트(Rock)	10. 9. 14:00	〃	일월문화제를 기념하고 대중과 함께 즐기는 거리공연
	일월문화거리문학제	10. 7. 18:00	〃	실개천을 배경으로 거리 시낭송과 작품 전시 등으로 구성
주제 전시	천연염색 작품전	10.7 – 10.9	문화예술회관	생활용품 120여 점 천연염색 작품전시
	규방공예 작품전	10.7 – 10.9	〃	각종 규방공예작품 60여 점 전시
	일월 수석전	10. 7. 12:00	〃	지역 애호가들이 소장하고 있는 수석 150여 점을 전시
	일월기념 분재전	10.7 – 10.8	시청로비	분재 동호회원 60명의 작품 전시
	열린세대전	10.8 – 10.9	보경사	겸재 정선 작품 전시 – 겸재 '정선' 가을을 보다
	연오세오포항국제 아트전	10.7 – 10.9	중앙아트홀	일월문화제를 기념하고 전국공모를 통한 회화 작품을 전시
일월 체험	도자기 공예	10.7 – 10.8	종합운동장	연오랑세오녀를 소재로 하는 도자기 만들기 체험
	목공예 만들기	10.7 – 10.8	〃	자연물(솟대, 목걸이 등)을 이용한 다양한 만들기 체험
	천연염색 손수건 만들기	10.7 – 10.8	〃	천연염료를 이용해 물들어가는 문양과 색의 변화를 체험
	놀이로 배워보는 아트교실	10.7 – 10.8	〃	어린이들의 연오랑세오녀 부채, 화폐그리기, 종이접기 등
	연오랑 세오녀 역사교실	10.7 – 10.8	〃	삼국유사에 나오는 연오랑 세오녀 역사 알기
	일월지 탐방	10.7 – 10.8		일월지 체험(일월차회)
	연아, 연아 올라라	10.7 – 10.8	〃	전통문화를 재미있게 연출하는 동화 구연 체험
	물레를 돌려라	10.7 – 10.8	〃	흙으로 빚는 다채로운 도자기 체험프로그램
	우리 전통차 체험	10.7 – 10.8	〃	전통차의 우수성과 예절을 함께 느껴보는 전통차 체험
	세계 속의 다문화 체험	10.7 – 10.8	〃	세계속의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
주제 대회	일월 전국시조경창대회	10.8 – 10.9	문화예술회관	전국 150여 시조인들이 출전하는 경연대회(소공연장)
	일월 학생미술 실기대회	10. 8. 10:00	해맞이공원	관내 초 · 중 · 고 학생들이 참가하는 미술실기대회
주제 세미나	연오랑세오녀 국제세미나	10 .7. 13:00	시청 대회의실	연오랑 세오녀의 역사 · 문화적 정체성을 나누는 세미나
	금석문 선도 메카이미지 구축 심포지엄	10 .7. 10:00	〃	냉수리 및 중성리 신라비 연구에 축적된 학술 심포지엄
부대 행사	제4회 경북식품박람회	10.7 – 10.9	종합운동장	경북도 23개 시군이 참가하는 전통 먹거리 한마당
	향토음식경연대회	10 .7. 11:00	〃	29개 읍면동이 참가하는 포항 맛 경연대회
	제5회 청소년 문화제	10 .9. 10:00	해도공원	가요제 및 댄스경연대회, 백일장, 사생대회 등

※ 위의 행사 내용과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1 포항의 맛 경연대회

포항의 숨은 맛, 참 맛을 찾습니다!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포항의 숨은 맛과 지역의 대표 먹거리에 새로운 맛을 더하는 참 맛을 발굴하여 포항을 대표하는 먹거리로, 나아가 전국적인 명품 먹거리로 키우기 위한 포항의 맛 경연대회가 열린다.

포항시는 오는 10월 7일 오전 10시 포항종합운동장에서 〈2011 포항의 맛 경연대회〉를 열어 수상작에 대해서는 포항시향토음식점 지정패 및 시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시청 홈페이지와 책자 등을 통해 홍보하는 등 포항의 숨은 맛과 참 맛 발굴에 적극 나선다.

제4회 경상북도 식품박람회와 함께 열리는 이번 경연대회는 29개 읍면동별 각 2개 대표요리, 총 58개 팀이 참여하는 〈포항시 웰빙 향토음식 맛 자랑 경연대회〉와 물회 · 과메기 등 지역식재료를 활용한 지역의 전문음식점과 시민 등 총 20개 팀이 참여하는 〈과메기 · 물회 요리 경연대회〉로 나눠 진행된다.

읍면동에서 접수 · 추천된 58개 팀이 벌이는 향토음식 맛 자랑 경연대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90분간에 걸친 조리에 이어 건강증진 기여도 및 상품화 가능성 등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거친 뒤 우수작에 대한 시상이 끝나면 곧바로 수상작에 대한 전시 및 시식 행사로 진행된다.

아울러 포항시민 또는 관내 음식점들이 참여하는 과메기 · 물회요리 경연대회도 포항시와 음식업지부에 접수 · 추천된 20개 팀이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에 걸친 조리에 이어 심사위원 평가, 우수작 시상, 수상작 전시 및 시식 행사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포항을 찾는 관광객은 물론 전국에 포항의 명품 먹거리를 선보여 전 국민의 입맛을 다시게 만드는 경연대회가 될 것으로 보이고, 청정 웰빙 먹거리 관광이 활성화되면 지역경제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싱싱한 희망 "시장"

글 | 정차준 사진 | 안성용

새벽 2시. 젊은 오토바이가 죽도시장 골목길에 잉크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신문을 배달한다. 그로부터 10분이 지난 시각. 번개시장에서 1등을 한 것은 민경신 마취 통증의학과 쪽 도로가에서 시동도 끄지 않은 트럭이다. 새벽 2시 40분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이 죽도동을 지나는 시각이다.

새벽 5시의 번개시장은 메이크업을 하지 않은 맨얼굴이다. 눈썹에 서리를 앉힌 할배와 장독 같은 허리에 몸빼바지를 걸친 할매가 모습을 드러낸다. 50대 아지매는 몸 하나가 온 가족의 밥상이다. 자리를 먼저 차지하려고 먼 데서 새벽길을 몰고 온 이들이다.

번개시장에서 노점 상인들이 활동하는 시간은 새벽 2시부터 아침 7시 30분까지다. 포항 여기저기서 번개처럼 달려온 트럭과 봉고차와 자가용 들은 도로가에 벌써 한 자리를 차지했다. 이들은 아침 7시 30분 이후 대중교통에게 시원스레 자리를 내줘야 한다.

번개시장은 독립문 죽도점 쪽 신호등 건너 세명약국 앞길에서부터 외환은행을 지난 송도 방향으로 앉고 선다. 장기, 구룡포, 일월동, 오천, 강동, 흥해, 신광, 기계 등지에서 온 사람들은 먹고살기 위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쌀자루, 신문지, 비닐, 박스 등을 바닥에 깔고 자리를 펴야 한다.

어둠이 서서히 물러나는 시각은 오전 5시 30분. 추석 명절 끝이라 노점 상인들은 많지 않다. 자릿세를 주지 않고도 흥정이 가능한 번개시장에서 환갑을 넘긴 아지매가 천 원짜리 지폐를 센다. 이 아지매는 이미 마수걸이를 끝냈다. 식당 주인이나 가정집 부인이 번개시장을 기웃거린다.

배, 감, 포도, 복숭아, 사과, 자두가 손님을 목 빠지게 기다린다. 토마토, 감자, 옥수수, 고구마, 고구마 줄기, 쌀, 제피, 고추, 고춧잎, 깻잎, 배추, 열무, 대파, 호박, 마늘, 가지, 오이, 수세미, 더덕, 부추, 도라지, 상추, 아욱, 시나나빠, 싸리버섯, 표고버섯, 송이버섯, 두부, 도토리묵, 무화과의 주인도 손님을 반기는 심정은 매한가지다. 죽도동에 살며 번개시장에 참여한 아지매는 와송이 항암치료제란다. 5월부터 10월까지 기왓장에서 자라는 식물이 와송이란다.

6시가 되자 번개시장이 온통 환하다. 커피장수가 아침을 밀고 지난다. 초강력 치약 식 바퀴벌레 퇴치제는 밀차에 앉아 손님을 쳐다본다. 파리, 모기, 날파리, 쇠파리, 똥파리…… 창고의 쥐를 잡아요. 녹음기 소리가 잠 덜 깬 아침을 마저 흔들어 깨운다. 이모야, 오랜만이데이. 고추 쪄 묵으이까네 그래 맛있데? 미꾸라지 담은 물이 와이래 뿌옇노. 소리들이 만나서 펄떡펄떡 살아 뛴다.

번개처럼 모였다 번개처럼 흩어져도 새벽을 여는 사람들이 있어 번개시장이 굴러간다. 포항사람들은 싱싱한 희망을 사간다. 활기를 띠는 생활력은 포항사람들이 날마다 얻는 덤이다.

전국 최고를 자랑하는 어르신 일자리사업

지난 2004년 8,700만 원 67명으로 시작한 포항시 어르신 일자리사업이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 지금은 57억8,100만 원 5,500여 자리로 늘어나 규모면에서 전국 1위를 자랑하고 있다. 이는 불과 8년여 만에 어르신 일자리가 82배 늘어난 수치다. 특히 이러한 양적 성장과 함께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자리가 속속 만들어져 질적인 면에서도 크게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는 물론 자발적 참여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보다 전문성을 필요로 하거나 자신들로 인해 수혜자가 확연히 보이는 사업 참여 어르신들이 이러한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에서 전래놀이를 가르치는 어르신들은 아동센터의 관할 범위가 넓어 긴 이동시간과 교육준비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지만 다소 소외되어 있는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고 함께 어울린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아 근무시간 외에도 자발적으로 봉사활동까지 더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르신 일자리사업으로 시작해 지금은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한 〈클린토이〉는 장남감을 고압스팀으로 소독, 세척하는 전문기술 사업체로 동해안 지역에서 독점 계약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우량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지역기업과 복지기관, 시가 삼위일체가 되어 추진되고 있는 〈면사랑 1,2,3호점〉, 〈달콤한 일터〉, 〈뛰뛰빵빵사업〉 또한 좋은 롤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경로의 달 10월은 어르신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담아 드리는 달

10월은 경로의 달이다. 포항시는 '활기찬 노년, 희망찬 재도약'이란 슬로건으로 오는 10월 4일 10시 30분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15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가지는 등 각종 행사를 열어 비약적인 국가발전은 물론 지역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다했던 어르신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로효친사상을 더욱 높여 나가는 등 어르신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가득 담아 드리기로 했다.

먼저 제15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는 모범노인 및 노인복지기여자 등 유공자 표창, 100세 노인 청려장(장수지팡이) 전달 등 기념식에 이어 실버건강생활실천대회와 실버장기자랑대회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 100세가 되는 어르신에게 주어지는 대통령 기념품인 청려장은 장기면 읍내리 이화선, 죽도동 고준심 등 2명의 어르신에게 전달된다.

노인의 날 기념식 및 실버건강생활실천대회

- 일　　시 : 2011. 10. 4 (화) 10:30
- 장　　소 :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행　　사 : 장수기원 큰절하기, 초청가수 축하공연, 실버장기자랑대회, 노인무료건강검진

※ 실버장기자랑대회
- 40개 팀 정도 (읍면동, 복지회관, 노인대학, 노년회별 1개팀)
- 노래, 무용, 댄스 등 어르신들의 장기자랑 대회
- 우수어르신 선발 · 시상 및 경품 지급

10월 중 제1회 해피포항 실버 골든벨 개최

- 참석대상 : 65세 이상 누구나
- 주요내용 : 우리나라의 전통예절 및 효, 포항시의 일반현황 및 주요시정

10월 중 영일만르네상스 현장 견학

- 대　　상 : 노인요양시설 22개소 입소 어르신 720명
- 견학시설 : 영일만항, 북부해수욕장 · 동빈부두 테마거리, 포항함, 덕동마을, 호미곶 등
- 내　　용 : 시 주요 현장 견학을 겸한 효도관광 실시

10월 중 자매 경로당 방문 및 환경정비

- 대　　상 : 경로당 557개소
- 방 문 자 : 자매결연 기업체, 기관 · 단체 및 자생단체(643개소), 시 산하 부서(402개 담당)
- 내　　용 : 경로잔치, 경로당 주변 청소 및 환경정비, 말벗, 애로사항 청취 및 건의사항 수렴

poma 포항시립미술관

2011 아트웨이 프로젝트

포항시립미술관은 미술관 컬렉션을 포항의 도심 공간에 확장, 설치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미술작품을 향유하고 도시공간의 심미적 구축에 미술품을 활용하려는 〈2011 아트웨이 프로젝트〉를 9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포항문화예술회관 및 해도공원 일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포스코와 형산강을 배경으로 포항의 대표적 경관 이미지를 갖고 있는 포항문화예술회관과 해도공원 내에 포항시립미술관의 소장품과 국내 대표작가의 조각 작품을 설치하여, 포항 시민의 여가, 일상 공간 속에서 미술문화를 접하고 향유토록 하는 색다른 기회가 될 것이다. 아트 웨이(Art Way)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미술이 길이 됨으로써, 그 길로 만나게 되는 장소와 도시를 예술로 거듭나게 하려는 취지를 가진, 그동안 시도되지 않았던 미술관 주도의 공공미술 프로젝트이다. 포항시립미술관은 이를 위해 그동안 한국의 주요 스틸 아트 작품을 수집하였고, 이번 조각전의 내용적 의미를 풍부하게 하기 위해 미술관 소장품은 물론, 해도공원의 장소적 맥락에 부합하는 국내 주요 작가들의 작품을 초청하여 시민들과 만나고자 한다. 일상의 공간이 예술이 되고, 예술로 도시가 더욱 아름다워지게 되도록 할 이번 야외 조각 전시는 포항시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과 도심속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전시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　　간 : 9월 29일 ~ 10월 31일
- 장　　소 : 포항문화예술회관 및 해도공원 일원
- 참여작가 : 강성훈, 김경민, 김민형, 류인, 문병두, 박승모, 박충흠, 성동훈, 심정수, 안종연, 양태근, 엄태정, 이기수, 이길래, 이원석, 이윤복, 조영철, 최만린, 홍명섭(이상, 19인, 23작품)

2011 기획공연

포르투갈 현대음악 앙상블 공연 Sond' Ar-te Ensemble

포르투갈 Sond'Ar-te 앙상블

2007년 첫 데뷔. 솔로연주자 등 현대음악계 뛰어난 젊은 연주자들로 구성. 포르투갈 출신이며 유럽 현대음악계에서 혁신적인 음악프로젝트로 플롯, 클라리넷,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의 5가지 악기와 전자효과가 창조하는 독특한 음악이 주목받고 있음. 포르투갈 뿐만 아니라 파리, 바르샤바페스티벌,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등에서 연주회를 개최하는 등 세계적으로 활동 중임.

포항시는 한국국제교류재단과 공동으로 유럽 현대음악계의 혁신적인 음악프로젝트 단체인 포르투갈 출신의 Sond' Ar-te 앙상블 초청공연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세계적인 연주회 관람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공연은 지난 4월 5일 포항시와 한국국제교류재단 교류 협력 MOU 체결 관련 문화예술분야 교류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열리게 되었다.

- 일　　시 : 2011. 10. 22(토) 19:00
- 장　　소 :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연 주 자 : 포르투갈 출신의 Sond'Ar-te 앙상블(6명)
- 프로그램 : Cadavre Exquis(collective work) 등 3곡
- 입 장 료 : 무료공연, 선착순 입장

기청산식물원 〈토종국화전시회〉 연다

포항시 북구 청하면 덕성리 362(청하로 175-50)에 위치한 기청산식물원에서는 가을을 맞아 토종국화전시회를 연다.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결코 화려하지는 않지만 질박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들국화가 한자리에 모인다.

은은한 들국화의 빛깔과 향기가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가을 정취에 한껏 젖어들게 할 것이다. 원예용 국화와 달리, 흔히 볼 수 없는 토종 국화꽃이 40여 종이나 전시돼 우리 꽃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산 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 평일 6,000원, 주말 7,000원이며, 경로 · 군경 · 지역주민은 5,000원, 만 3세에서 고교생까지는 4,000원이다. 20인 이상 단체방문은 1인당 1,000원이 할인된다.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7번 국도 영덕 · 울진 방향으로 흥해읍을 지나 10여 km 지점에 이르면 내리막길 끝에 대형도로표지판 '청하'가 신호등 앞에 나타나고, 여기에서 좌회전해서 1km 들어오면 청하중학교와 식물원안내판이 나타난다. 버스를 이용할 경우 청하행 좌석 500번을 타고 청하파출소에서 하차하여 서편 골목길로 들어서면 청하중학교 뒷길 따라 300m에 위치한다. [문의 : 054-232-4129, 232-7343]

문화, 영일만에 빛나라

가을이다. 흔히 시월을 문화의 달이라 일컫는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앞 다퉈 다양한 문화행사를 마련하고 시민들을 기다린다. 전시, 공연, 체험, 세미나 등 펼쳐진 문화마당으로 우리는 저마다 감각의 밥술을 뜨러 나간다.

우리 지역에도 이맘때면 대중적이면서도 독창적인 문화잔치가 열린다. 벌써 축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군데군데 각종 행사준비로 분주한 모습들이다. 문화시민의 긍지를 되살려 시월 한 달만이라도 미뤄둔 문화체험을 위해 거리로 나서보자.

우선, 나는 떠들썩한 분위길랑 뒤로 한 채 포항시립미술관부터 찾는다.

자주 찾는 곳은 아니지만 갈 때마다 푸근하고 아늑한 느낌이 든다. 그러면서도 위엄을 잃지 않는 것은 제철 도시답게 철과 관련된 차별화된 미술관이란 정체성 덕분일 것이다. 시민으로서 충분히 자긍심을 가져도 좋을 문화 공간이기에 시간이 나면 찾게 된다.

미술관의 개념조차 제대로 몰랐던 내가 관계자들의 도움으로 어렴풋이나마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작품소장에 관한 일, 전시 · 기획 관련, 시민 교육 등 크게 세 가지 기능을 하는 곳이 미술관이란다. 작품수집에 관한 기획력과 더불어 수장고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도 덤으로 얻었다. 작품전시와 대관이 주요업무인 줄 알았던 내 무식함을 깨닫는 것도, 그것을 상쇄하기 위해 장두건 화백 전시관으로 향하는 발걸음도 문화가 주는 힘이다.

조용한 미술관을 벗어나 활기찬 문화의 장으로 나서보자. 영일만을 대표하는 지역문화축제인 일월문화제도 놓칠 수 없다. 연오랑 세오녀 설화에 바탕을 둔 일월정신을 고취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포항의 개척정신을 추구하는 이 종합축제에도 적극 참여할 참이다.

환호해맞이공원과 중앙상가실개천거리, 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한 영일만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들이 열린다. 일월 풍물제, 국악 뮤지컬, 연오랑 세오녀 세미나, 지역문화 골든벨, 거리문학제 등의 프로그램을 눈여겨본다. 문화란 넓게는 전통계승과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주고 개별자에게는 오감의 승화와 자기만족을 주는 정신활동이다. 포항시민으로서 지역문화의 근간인 태양, 빛, 철이 주는 각종 행사에 참여해 문화적 기쁨을 얻었으면 좋겠다.

제1회 운제산 문화제로 떠나요

오는 10월 22일(토) 오전 10시부터 대송면 운제산 일원에서 '자연과의 교감'(人+木=休)을 주제로 하는 〈제1회 운제산 문화제〉가 열린다. 첫 번째 열리는 이번 문화제는 포항의 진산인 운제산 문화투어 및 숲길 체험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교감하는 생명의 숲 체험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삶의 활력 증진은 물론 운제산 · 영일만온천 · 조각공원과 연계한 문화 인프라 구축이 기대되고 지역 축제로 자리매김하여 주민 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문화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 화 행 사 : 창해역사퍼포먼스, 안동하회탈춤, 난타공연, 댄싱퍼포먼스, 그림그리기, 시 경연대회, 운제산 3행시 짓기 등
- 가을음악회 : 운제산 가요제, 초대가수, 통기타 라이브 등
- 체 험 행 사 : 운제산 숲길 걷기, 온천욕 체험, 풍물체험, 가훈 써주기, 숲 생태 관찰하기, 바람개비 만들기, 목공예, 비눗방울 체험관 등
- 부 대 행 사 : 농산물특판장, 먹거리장터, 포토 존, 대송의 어제와 오늘 사진전, 민속놀이, 철강 역사관, 건강 체험관, 행운권 추첨, 소원 풍선 날리기, 나이테 알아보기, 운제산 보물찾기 등

운제산으로 떠나는 가을여행

올 가을은 포항의 명산 운제산에서 가족, 친구와 함께 진산의 정기도 받고 가을의 풍요로움을 만끽해보자. 일상의 번잡함을 잠시 잊기 위해 운제산으로 가을 산행을 떠나는 여유를 누려보자. 가슴에는 추억과 낭만이 가득할 것이다. 운제산(雲梯山)은 대송면 산여리와 오천읍 항사리에 걸쳐 있다. 정상은 해발 482m이며, 동쪽 기슭에는 신라 진평왕 때 창건된 유서 깊은 오어사(吾魚寺)가 있으며, 산 아래쪽에 대규모 휴양지인 영일만온천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운제산에는 높이 8m, 둘레 60m의 거대한 대왕암이 자리해 그 신비스러움을 더해주고 있다. 대왕암은 가뭄이 심할 때 기우제를 지내면 영험하다는 전설이 현재까지 전해온다. 운제산은 「삼국유사」의 기록을 보면 신라시대 때 자장, 혜공, 원효대사가 이곳에서 함께 수도를 하면서 구름을 사다리 삼아 절벽을 넘나들어 운제산이라고 했다는 설과 신라의 제2대 왕인 남해왕의 비 운제부인(雲帝夫人)의 성모단이 있어 이름이 유래되었다는 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운제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조망은 시원하고 아름다워 이곳포항전경은 그야말로 포항의 발전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매력이다. 운제산은 사시사철 등산객들에게 등산, 숲 탐방, 산림욕, 수목감상, 역사공부, 사찰탐방 등을 느낄 수 있는 포항의 대표 명산이다. 산기슭에는 산채비빔밥, 손칼국수, 오리구이, 파전, 막걸리, 흑염소 등이 등산객들의 운제산 가을 여행을 마무리하기 위해 맛깔스럽게 자리하고 있다.

천곡사 돌우물

글 | 김일광 삽화 | 최수정

"임금님! 보기 흉하게 왜 자꾸 긁어댑니까?"
선덕여왕은 화들짝 놀라며 옷매무새를 바로잡았다. 방에 홀로 있다고 생각했는데 누가 들어와 있었단 말인가.
"누, 누구냐?"
"접니다. 비형랑이요."
"아니, 부리! 내가 몰래 다니지 말라고 했잖아."
부리라고 부르는 비형랑, 그는 죽은 진지왕과 미인으로 소문난 과부 도화녀 사이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만나서 낳은 도깨비였다. 어릴 때부터 괴이한 소문을 몰고 다녔기 때문에 진지왕의 조카였던 진평왕이 궁으로 불러서 키웠다. 선덕여왕과는 숙질 관계였지만 어릴 때부터 친구나 남매처럼 친하게 지냈다. 도깨비 몸인지라 어디 못 가는 데가 없고, 모르는 게 없었다. 심지어 도깨비들을 불러서 하룻밤 사이에 다리를 '뚝딱' 만들어 놓기도 했다. 이날도 또 바람처럼 여왕의 내실 문틈을 비집고 들어온 모양이었다.
"피부병이 심한가 봐요?"
"어디 가서 말을 할 수도 없고 정말 미치겠다."
비형랑은 빙글빙글 웃으며 여왕 앞에서 고개를 요리조리 흔들었다.
"이 가려움에서 놓여 날 방법을 알고 있는 모양이구나. 수선떨지 말고 제발 가만히 앉아서 이야길 해 봐."
"알고말고. 나는 모르는 게 없다고요."
"아참! 그렇지. 내가 왜 너를 떠올리지 못했지? 그래, 이 지긋지긋한 가려움증을 어떡하면 될까?"
여왕은 비형랑의 손을 잡고 흔들었다. 빙글빙글 웃어대던 비형랑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여왕의 귀에다 대고 속삭였다.
"오는 동짓날 궁을 나가서 곧장 동으로 가세요. 천곡령에 가면 하늘이 숨겨 논 돌우물이 있어요. 그 물에 몸을 씻으세요."
비형랑은 무슨 비밀을 말하듯이 재빨리 말을 끝내고는 돌아섰다.
"잠깐, 잠깐. 부리야! 좀 자세히 말해 보거라."
다급해진 여왕은 비형랑 옷자락을 잡았다.
"아! 주의할 점, 아무도 몰래 궁녀 하나만 데리고 가세요. 동짓날 밤 자정에 그 우물에 물이 바뀔 거요. 새롭게 솟는 새 물을 기다렸다가 씻어야 해요."
"부, 부리야!"
비형랑은 들어올 때처럼 바람처럼 또 문틈을 빠져 나가버렸다.
여왕은 비형랑이 한 말을 찬찬이 정리해 보았다. 동짓날 궁을 나가서 동쪽으로, 천곡령, 돌우물 …….
'가만, 오늘이 며칠이더라.'
날짜를 짚어보니 바로 내일이 동지였다. 여왕은 가장 가까운 궁녀에게 떠날 채비를 시켰다. 날랜 말도 준비하게 하였다.
이튿날, 여왕은 아무도 몰래 궁을 빠져 나왔다. 천곡령에 이르자 산 중턱으로 무작정 올라갔다. 이미 비형랑이 도깨비들을 동원하여 돌우물 주변에다 막을 쳐 두고 있었다. 하늘이 환하게 열린 한 데서 어떻게 옷을 벗을까 했던 걱정을 말끔히 씻어 주었다.
여왕은 그 천막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정을 기다렸다. 자정이 다가오자 우물에서는 마치 불을 지피는 것처럼 김이 무럭무럭 올라오기 시작했다. 여왕은 정신을 가다듬으며 손을 대 보았다. '악' 소리가 나올 만큼 차가웠다. 손이 얼음덩이가 되어 주루룩 떨어져 버릴 것만 같았다.
"임금님! 자정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궁녀가 천막 밖에서 가만히 일러 주었다.
그때였다. 차가운 김이 점점 사라지더니 가득하던 우물물이 한순간에 땅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

다.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들여다보던 여왕도 끌려 들어갈 것만 같았다. 잠깐 뜸을 들이는 듯 우물 속에서는 괴이한 소리가 들리더니 수백, 수천의 뱀이 머리를 흔들어대며 올라오기 시작했다.

'아악!'

목울대까지 북받쳐 올라온 비명을 간신히 참았다. 그러나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다. 온몸을 웅크리며 우물에서 떨어졌다. 그러나 더 이상은 물러서지 않으려고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 우물을 가득 채우던 뱀들은 급기야 우물 밖으로 넘실거리기 시작했다. 묘한 서기까지 피어오르고 있었다. 여왕은 숨을 한 번 크게 들이 쉬고는 뱀들을 노려보았다. 그때 비형랑이 중얼거리던 말이 떠올랐다.

"새 물에 몸을 씻으세요."

여왕은 용기를 내어 뱀을 움켜쥐었다. 그런데 뱀이 손아귀에 들지 않았다. 그것은 뱀이 아니라 동짓날 솟아오르는 새 물이었다. 새 기운이 넘치는 뜨거운 물이었다. 여왕은 온몸에 물을 끼얹었다. 뱀들이 펄펄 살아서 여왕의 온몸을 칭칭 감는 듯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동해에서 해가 뜨고 있었다. 울긋불긋하게 여왕의 온몸을 뒤덮고 있던 열꽃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궁으로 돌아온 여왕은 자장율사에게 돌우물이 있던 자리에 절을 짓고 천곡사라 부르게 하였다.

천곡사(泉谷寺)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 796번지 소재. 천곡사에는 석천이라는 샘이 있다. 신라 27대 선덕여왕은 피부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였다. 마침 석천의 소문을 들은 신하가 동쪽 도음산 천곡령(泉谷嶺) 아래 효험 있는 샘에 가서 씻을 것을 권하였다. 이 말을 들은 여왕은 안강, 기계, 신광을 거쳐 흥해 천곡령에 도착하여 석천에 목욕을 하고 나니 씻은 듯이 병이 나았다고 한다. 여왕은 하도 신기하고 고마워서 자장율사로 하여금 그곳에다 절을 짓도록 명하고 이름을 '천곡사'라 하였다 한다. 또 고려 말에 이 절의 한 중이 괴력(怪力)을 얻어 민가의 규수를 농락하는 일이 빈번하므로 관가에서 잡아들여 힘의 근원을 물으니, 10년간 이 절에서 나는 약수를 먹은 탓이라 했다. 그래서 관에서는 그 중이 먹었다는 샘을 메우고 그 자리에 변소를 짓게 했다는 얘기도 전해 온다. 절은 안타깝게도 한국전쟁 때 전소되었으나 석천만은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채 아직도 그 맑음을 자랑하고 있다.

〈찾아가는 길〉

달전 검문소 못 미쳐 7번 국도에서 왼쪽으로 계곡 깊이 있는 동네가 학천리다. 학천리를 따라 계속 가다보면 아름드리 벚나무가 있는 저수지가 나온다. 다시 도음산 속으로 달리는 길을 따라 가다보면 천곡사 주차장이 나온다. 길 오른편 산기슭에 배천희 국사당이 있다.

지장물 철거 완료되는 12월부터 동빈운하 판다

포항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동빈내항 복원 공사가 9월 7일 착수보고회 및 현장사무실 개소식을 가져 급물살을 타게 됐다. 동빈내항 복원사업은 동빈내항에서 형산강까지 옛 물길을 다시 연결하는 동빈운하 건설을 핵심사업으로 주변 지역 재정비 촉진사업과 동빈부두 정비공사, 송도백사장 복구, 포항구항 해양공원 조성, 포항구항 재개발 등 대규모 환경복원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동빈내항은 오랫동안 바닷물이 순환하지 못하고 갇히는 바람에 오염이 심화되고 주변 도심이 개발되면서 1.3km 길이의 형산강 지류 물길이 사라져 버린 곳이다. 포항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곳의 옛 물길을 복원해 형산강 물이 다시 흐르도록 수변 유원지를 조성하게 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 온 동빈부두 정비사업은 죽도시장에서 포항지방해양항만청사까지 1.7km의 담장과 창고, 컨테이너, 급유탱크, 위판장 등을 모두 철거하고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공사를 마무리했다. 또 포항시민의 향수로 남아있던 송도백사장 복구의 경우 국가공업기지 건설과 구항 방파제 연장으로 침식이 가속화돼 침식방지사업을 통해 국토를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토해양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백사장 복수공사비 380억 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 2012년도 신규사업에 선정돼 착공될 예정이다. 특히 무역항 기능이 상실되고 있는 포항구항에 동빈내항 복원 종합프로젝트로 기획한 포항구항 해양공원 조성계획의 경우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해 고시했고, 국토해양부 국민여가공간조성 시범사업에 선정돼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구해놓은 상태로 가시적인 성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사업은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100% 완료됐고, 주민 이주율이 92%에 이르고 있으며, 지장물 철거가 완료되는 오는 12월부터 본격적인 조성공사에 들어가 오는 2013년 마무리된다.

"송편은 소통입니다. 송편 빚듯이 소통합시다."

박승호 포항시장이 추석연휴를 하루 앞두고 직원들과 송편을 빚으며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박 시장은 9월 9일 포항시청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러 온 직원 500여 명을 상대로 직접 송편 배식을 했다. 박 시장은 이에 앞서 8일 퇴근시간 구내식당에서 최은정 씨(보건정책담당관실 근무) 등 직원 12명과 함께 송편을 빚으면서 송편과 소통의 공통점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얘기해 관심을 이끌어냈다.

박 시장은 이날 "추석은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이며 송편빚기는 추석에만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한마당"이라 말하고 "가족, 친지간 둥글게 마주앉아 송편을 빚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묵은 오해와 불신이 해소되고 서로가 한가족임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고 역설했다.

박 시장은 또 "송편빚기는 창의성을 생각하게 하는 장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어른들은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송편을 만들어내는 데 반해 아이들은 엄청난 상상력으로 기상천외한 작품을 만들어낸다. 아이들의 무한한 창조에너지는 유연한 사고, 즐거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 만큼 포항시가 창의성이 넘치는 직장, 즐거운 직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육거리 문화공간갤러리전II - '파도로 오라'

포항시는 9월 7일부터 18일까지 육거리 일원에서 포항을 빛낸 올해의 작가 9인을 초청, 육거리 문화공간갤러리전II-파도로 오라 플래카드 전시를 열었다.

이번 전시는 미술작품만 전시하지 않고 전시의 내용을 상징하는 주제 시를 선정해 시와 그림이 어울리는 전시 풍경을 연출했다. 주제 시는 고은 시인의 시 「장기곶에서」다. 15년 전 동해바다 장기곶(지금의 호미곶) 바다를 방문해 '파도'를 보고 내일의 희망과 꿈을 노래한 세계적인 시인인 고은의 친필시를 중앙아트홀 외벽에 주제 시로 게시했다. 중앙아트홀 벽면에 고은 시인의 시를 대형 플래카드로 출력해 걸고 육거리 일원에 포항을 빛낸 올해의 작가 9인 초대작 54점이 소형 플래카드로 전시돼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줬다.

포항시, 기업지원상담센터 개소

포항시는 9월 8일 기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고 실질적인 규제완화와 기업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시청 본관 14층에 165㎡(50여 평) 규모의 기업지원상담센터를 열었다.

포항시 기업지원상담센터는 연중 상설 운영되며 투자유치 에이젠시 팀원, 기업애로대책위원회 위원, 기업애로 상담관, 기업지원기관 임직원 등 매일 전문 상담원 2명이 지원근무하며 공장설립(창업), 정책자금, 기술 · 경영혁신 지원 등 기업애로 관련 종합 상담을 한다.

한편 기업지원 상담센터 내에는 소회의실과 간단한 기업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룸을 갖추고 있어 포항에 공장을 신설 중인 기업, 투자유치 자문관, 지역출신 전직 CEO, 우수중소기업에서 직원 채용면접, 임원회의, 바이어 상담, 마케팅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 임대할 계획이다.

또 포항의 기업인이 자긍심을 가지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 전화, FAX 기업관련 정기간행물, 주요 일간지, 음료 등 비즈니스 편의를 제공하며, 전화상담은 270-3800으로 이용할 수 있다.

중국국제투자무역상담회서 영일만항 포트세일

포항시는 영일만항 홍보 및 새로운 물류시장 확보를 위해 9월 8일부터 11일까지 중국 샤먼에서 열린 제15회 중국국제투자무역상담회(China International Fair for Investment and Trade)에 참가해 포트세일을 전개했다. 포항시 포트세일단은 국제투자무역상담회 기간동안 홍보부스를 설치해 박람회에 참가한 글로벌 물류기업과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포항영일만항 상담회를 열었으며, 동영상 홍보와 팸플릿 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영일만항 알리기에 박차를 가했다.

이어 9일에는 박람회에 참가한 글로벌 물류기업과 항만관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샤먼국제회의센터에서 영일만항 현황과 항만이용의 편리성, 인센티브 등을 소개했다. 중국 상무부가 주관하고 1997년에 시작돼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중국국제 투자무역상담회는 세계 145개국 1만3천여 명이 방문하는 중국 최대의 무역박람회이다.

다소리세오녀합창단, 청춘합창단과 한판 승부

포항 다소리세오녀 합창단(지휘자 김상현)이 24일 KBS 전 국민 합창대축제에서 남자의 자격 '청춘합창단'과 한판 대결을 앞두고 연습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합창단원들은 9월 9일 여성문화회관 3층 강당에서 지휘자 김상현 씨의 지휘로 파트별 연습 최종 마무리 연습에 매진했다. 단체 연습이 끝난 이후에도 강당에서 각자 개인 연습과 파트별로 나눠 연습을 하며 하나하나 마지막까지 점검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다소리세오녀 합창단은 지난 4월 한국,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무지개빛깔 7개국 결혼이주여성 25명으로 팀을 구성해 합창단을 창단했다. 포항 다소리세오녀 합창단은 UCC 동영상 1차 예선을 통과하고, 지난 8월 20일 부산에서 열린 2차 지역예선에서 '가시리'를 열창해 9월 24일 서울 KBS본관 대공개홀에서 벌인 KBS 전 국민 합창 대축제(더 하모니) 대회 본선에 진출하는 영예를 안았다.

일본 이비덴사, 포항에 2,000억 투자

포항시가 일본 이비덴(IBIDEN)사를 영일망항 부품소재단지에 유치함에 따라 이를 계기로 일본 부품소재기업들의 포항진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포항시와 이비덴사는 9월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승호 포항시장과 공원식 경북도 정무부지사, 이비덴사 다케나카 히로키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부품소재전용공단 투자의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에 따르면 이비덴사는 올해부터 오는 2015년까지 5년간 150억 엔(한화 약 2,000억 원)을 투자해 비금속 광물제품인 그라파이트(흑연) 생산공장을 건설키로 하고, 시는 행정적 지원과 협력을 최대한 제공하게 된다.

그리고 인조흑연 생산이 시작되는 2014년에는 715억 원을 생산, 연차적으로 증산함으로써 연간 800억 원에 달하는 인조흑연 수입대체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비덴사는 지난 5월 부사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포항을 방문한 데 이어 지난 7월에는 박승호 시장이 이비덴사 본사를 방문하는 등 투자유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다.

포항물회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중간보고회 열려

포항물회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사업 중간보고회가 8월 29일 포항시청 소회의홀에서 열렸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포항물회'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출원서 작성을 위한 조사연구 경과보고와 브랜드 디자인개발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추진사항을 중간점검했다.

또 이날 죽도어시장 김경수 씨를 회장으로 임원 14명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포항물회 연합회 창립총회도 함께 개최됐다. 사단법인 포항물회 연합회는 8월 말 경상북도 설립허가를 신청해 9월 말 설립허가 및 설립등기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리적 표시단체표장은 해당지역 법인체가 일정요건을 갖춰 지리적 표시에 대해 단체표장등록을 받은 경우 특정 지역 특산물의 지역 표시권을 배타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이다. 포항물회가 지리적 표시단체 표장등록이 되면 상표법으로 보호를 받게 되면서 특구지역 이외의 장소에서는 포항물회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포항함에 연평도 포격 북한국 포탄 및 잔해 전시

함상 안보체험 전시관으로 탈바꿈해 인기를 끌고 있는 포항함에 연평도 포격사건 때 발생한 '북한군 포탄 및 그 잔해'가 전시된다. 이번 전시는 국방부 기술정보분석과와의 수차례 업무협의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오는 2016년 6월까지 5년간 무상으로 대여해 전투정보실에 전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투정보실에는 연평도 사건의 처참했던 현장사진 및 북한군 포탄의 실체를 투명강화유리로 제작해 그 날의 기억을 생생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6월 개관한 포항함에는 현재까지 학생 및 어린이 관광객 등을 포함해 23만여 명이 관람했으며, 해병전역자를 대상으로 포항함 체험관을 필수체험코스로 선정해 이미 1,606명이 관람을 마치고 전역했다.

손기정 선생 아들 정인 씨 "포항 발전 놀랍다"

베를린 올림픽 영웅 고 손기정 선생의 아들 정인 씨(68세, 재일본 한국민단 요코하마지부 사무부장)가 포항을 찾았다. 손씨는 9월 8일 포항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재일 한국민단 가나카와 지방본부 포항 방문 행사에서 "박승호 포항시장과 만나 50년 만에 포항을 찾았다"며 작은 어촌 마을이 세계적인 철강 도시, 첨단과학도시로 변모한 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가나카와 지방본부 간부 포항 연수회에 참가하기 위해 포항을 찾은 손씨는 이날 포스코와 중앙상가 실개천, 북부해수욕장을 둘러본 뒤 포항이 포스코를 통해 세계적인 철강도시로 성장했으며 실개천과 북부해수욕장의 아름다운 야경을 통해 관광해양도시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손씨는 9일 구룡포 일본인거리, 양동마을을 둘러본 뒤 일본으로 돌아갔다.

손씨는 1968년 한일국교정상화 당시 일본 메이지 대학원에 유학한 뒤 줄곧 일본에서 거주하며 재일본 한국민단 요코하마 사무부장으로 있다. 이번에는 한국민단 가나카와 지방본부 소속 간부 37명과 함께 포항에서 열리는 연수회에 참가하기 위해 왔다.

제178회 임시회 주요 의정활동

제178회 포항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8월 26일부터 6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3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부합되도록 개정한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상원 의원은 '포항철강공단에서 발생하는 물질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이준영 의원은 '포항시의 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MOU체결에 대한 의견 제시로 눈길을 끌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2건의 조례안을 의결하고 간담회를 열어 제179회 포항시의회 의사일정을 협의했으며, 총무경제위원회는 포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조례안을 의결하고, 집행부로부터 포항복합화력발전소 유치 계획 보고를 비롯해 8건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보사산업위원회는 집행부로부터 음식물쓰레기 수집 · 운반 및 처리 대행계약 보고를 비롯한 3건의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건설도시위원회는 포항도시관리계획 열람에 따른 주민의견 검토 보고를 비롯한 4건의 업무보고를 받아 당면현안 업무 추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포항시의회 의원들, 추석맞이 전통시장돕기 앞장

포항시의회는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하여 지역의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에 앞장섰다. 32명의 의원들은 8월 31일 전체간담회장에서 대형유통업체들의 잇따른 진출과 세계경제 위기에 따른 고유가 · 고물가로 인해 갈수록 힘든 상황을 맞고 있는 지역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의원 1인당 10만 원씩 총 3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였다.

이상구 의장은 "최근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 경제는 다시금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지역의 영세한 상인들을 돕고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이번 추석 제수용품은 전통시장에서 구매하자는 취지에 전 의원이 공감하여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포항시의회, 2011 을지연습 상황실 위문 격려

포항시의회는 8월 17일 '2011 을지연습'이 한창인 시청 및 경찰서 등 유관기관을 방문하고 참가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이상구 포항시의회 의장은 이칠구 부의장, 이동찬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들과 함께 남 · 북구경찰서와 해양경찰서의 상황실을 방문한 데 이어 포항시청 상황실에서 2011 을지연습에 대한 중점사항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민 · 관 · 군 합동으로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여 유사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의장단 및 상임의장단, 의회운영을 위한 간담회 개최

포항시의회는 8월 17일 을지연습 상황실을 방문한데 이어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폐회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원활한 의회운영과 당면 현안사항의 적극적인 논의를 위해 긴급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안과 2011 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성공을 위한 포항시의회의 지원방안을 협의했다. 또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는 것은 물론 시민과 가까이 하는 의정활동으로 열린의회를 구현해 나가기로 했다.

포항시의회 초선의원들, 특강에 구슬땀

포항시의회 초선의원 스터디그룹은 8월 5일 선린대학교 이춘오 교수를 강사로 초빙하여 '포항시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안을 위한 의원들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본격적인 휴가철에도 불구, 제6대 의회에 첫발을 디딘 10명의 초선의원들은 '의원 전문성 강화'와 '공부하고 연구하는 정책의회' 구현을 위해 스터디에 구슬땀을 흘렸다. 초선의원 스터디그룹은 향후에도 포항시의 주요한 정책과 관련하여 정기적인 스터디를 실시하고,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추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힘쓸 계획이다.

▶▶ 포항시 평생학습 박람회

(일과 학습이 어우러지는 행복도시 포항)

- 기　간 : 2011. 9. 30(금) ~ 10. 1(토) 10:00~17:00
  ※ 개막식 9. 30(금) 14:00 초청가수 공연
- 장　소 : 해도공원 및 문화예술회관 일원
- 대　상 : 어린이, 학생, 시민 누구나 참여(체험, 관람 등)
- 내　용 : 동아리 경연대회(27개 팀) 및 작품 전시회, 평생학습 홍보체험관 운영(건강, 전통놀이, 공예 등 50여 가지 무료체험)
  현장 이벤트(도전골든벨, 도전기네스, 모형비행기대회)
  어린이 인형극 등 기타 부대행사
- 문　의 : 새마을평생학습과, 270-2862~5

▶▶ 2011년 하반기 포항 채용박람회

- 일　시 : 2011. 10. 19(수) 10:00~16:00
- 장　소 : 포항실내체육관
- 내　용 : 구인 · 구직자 현장면접, 취업상담 및 알림판 채용박람회
- 문　의 : 포항시 일자리종합센터, 270-2474

▶▶ 10월 시민 무료 법률상담서비스

- 일시 : 2011. 10. 17(월) 14:00~17:00(상담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장소 : 시청 법률상담실(지하 1층)
- 대상 : 포항시민
- 분야 : 시민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
- 방법 : 전화(270-2042), 팩스(270-2030)로 예약 후 상담실 방문 변호사와 대면상담
  ※ 시 홈페이지 사이버법률상담실 상시 운영

▶▶ 2011년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 실시

- 조사기간 : 2011. 10. 4. ~ 10. 11.(8일간)
- 조사부문 : 가구와 가족 등 11개 부분 35개 문항 내외
- 조사대상 : 포항시 표본조사구 700가구
- 조사방법 : 조사원의 가구방문을 통한 면접조사
- 문　의 : 정보통신과, 270-2211~4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만 6세~65세 미만 1급 등록장애인(소득과 무관)
- 신청기간 :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 지참서류 : 본인 통장사본, 건강보험증(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 문　의 :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 포항지사(280-0892~5)
  ※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제도 안내

- 신청자격 :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
  ※ 동일직무를 수행하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
- 적용 대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1인 이상)
- 문　의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심판과 ☎ 053-667-6520 (http://www.nlrc.go.kr/gyeongbuk)

▶▶ 정치후원금 기탁 안내

-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기탁금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
- 취　지 :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자금기부 확산과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 기탁할 수 있는 자 : 개인 누구나 가능(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포함)
- 기탁방법 : 선거관리위원회 계좌입금 또는 인터넷 납부 (정치후원금센터 http://www.nec.go.kr:8088/)
- 세제혜택 : 10만 원까지 세액공제,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
- 문　의 : 포항시 선거관리위원회, 278-1390

▶▶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기간 운영

- 기간 : 2011. 9. 1 ~ 10. 31
- 대상 : 학생 또는 18세 미만 청소년
- 신고전화 : 국번 없이 112 또는 포항남부서 272-0118
- 피해학생 보호, 학교폭력 피해자 상담 · 치유 프로그램 제공, 자진신고 학생 최대한 선처

▶▶ 제3회 호미반도 달빛산행 축제 사진 공모전

- 공모내용 : 행사당일 기준 사진으로 미발표 자유작
- 작품규격 : 11 X 14인치 컬러사진으로 포토샵 작업이 아닌 작품
- 출품수량 : 1인당 3점 이내
- 출품요령 : 사진 뒷면에 작품명, 촬영장소, 성명,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한 원본필름 또는 CD를 함께 제출
- 접 수 처 : 구룡포읍사무소,구룡포읍개발자문위원회사무국 (연락처 011-594-2603)
- 시상내역 : 대상(1명) 30만 원, 금상(1명) 20만 원, 은상(1명) 10만 원, 입선(5명) 5만 원(백화점상품권)
- 공모마감 : 2011. 10. 31(월)
- 심사발표 : 2011. 11. 10(읍사무소회의실) 17시 읍사무소홈페이지

제3회
호미반도 달빛산행 축제로 떠나요

조선시대 최대 국영목장이었던 영일 장기목장과 그곳에서 나고 자란 조선 최고 군마 장기마[馬]에 관한 역사의 흔적을 체험하는 〈제3회 호미반도 달빛산행 축제〉가 열린다.

이번 축제는 오는 10월 15일(토) 오후 4시 구룡포초등학교에 집결하여 포항의 올레길로 불리는 장기목장성 탐방로(구룡포 봉수대) 산행으로 시작된다. 시낭송과 색소폰, 통기타, 관악앙상블 공연으로 가을 운치를 더하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산 일대 쓰레기를 수거하는 자연보호 캠페인도 펼친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기념품(야광팔찌, 손등전지, 행운권)이 지급된다.

사진 | 김우수

장기 목장성 탐방로

구룡포읍사무소는 장기 목장성을 재조명하여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지난 2009년 희망근로사업으로 약 4km의 석성터를 발굴, 탐방로를 조성했다. 특히 구룡포 산1번지에 있는 봉수대 터를 개발하여 정상(해발 205m)에 2층 전망대를 설치, 태백산맥의 호미반도의 능선과 영일만항 등 3면의 동해 바다를 조망할 수 있다. 등산로에 벚나무 800본, 진달래, 구철초 등을 식재하여 4계절 탐방로를 찾는 탐방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탐방로는 8개 코스로 전망대 정상까지 3.1km로 1시간~1시간 30분(왕복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며 최근 많은 탐방객들이 이용하고 있다.

포항시민들의 응원함성, 대구스타디움에 울려퍼지다~

세계 육상의 별들이 총출동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열린 대구스타디움에 포항시민들의 응원함성이 울려 퍼졌다. 포항시와 시체육회는 8월 29일과 30일, 9월 1일과 2일 등 4일에 걸쳐 하루 300명씩 총 1,200명의 시민 단체 관람을 성공리에 마무리했다. 시민들은 "세계적인 선수들의 경기모습을 직접 보니 선수가 출발할 때 함께 긴장되는 마음이 든다."며 "우리나라도 이번 대회를 계기로 육상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육상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포항시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기간 중 홍보관을 설치해 운영했으며, 외국인 선수와 임원들을 대상으로 포스코, 죽도시장, 북부해수욕장 등을 관광하는 시티투어를 운영해 큰 관심과 인기를 끌었다.

2011 연일 부조장터 문화축제

연일 부조장터 문화축제 추진위원회는 10월 8 · 9일 이틀간 조선시대 대규모 시장의 하나로 경제 중심지 역할을 해왔던 부조장을 재현한 〈2011 연일 부조장터 문화축제〉를 연다. 연일향토청년회와 특우회가 주관하는 이 축제는 전통적 미풍양속을 계승 · 발전시키고, 지역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등 연일읍의 문화아이콘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 장　　소 : 연일읍 형산강둔치 특설 행사장
- 전야행사 : 부조장터 재현 퍼레이드, 달집태우기, 전국각설이 등
- 체험행사 : 장터문화 체험, 전통놀이 체험, 수상레포츠 체험 등
- 전시행사 : 연일역사관, 부조장터관, 연일초등 100년사, 영일고 전시관, 옥녀봉의 전설, 영일 정씨관 등
- 특별행사 : 주제공연, 형산강 도하, 코스모스 꽃밭조성, 유등설치, 소망유등띄우기, 전통혼례재연 등
- 경연행사 : 부조장터가요제, 리대항 씨름 · 윷놀이 · 팔씨름 등

제철동만의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제철동주민센터는 주민협의체(위원장 김복용)의 지원을 받아 관내 주민이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 출산장려금 11만 원을 지급하는 주민복지사업을 시행해 화제다.

흥해읍 다문화가정에 사랑의 선물

흥해읍 오도1리 이장은 이웃에 따뜻한 사랑을 전하기 위해 지인들과 뜻을 같이하여 오도 간이해수욕장에서 사랑의 콘서트를 열었다. 콘서트 수익금에 자비를 보태 마련한 100만 원은 흥해읍 다문화가정에 전달하여 따뜻한 추석 인심을 나누었다.

포항시장학회 장학금 기탁자

- 포항지역농협 1,200만 원
- 고려능력개발원(원장 안창섭) 100만 원
- 태영수산(대표 이영태) 200만 원
- 오천읍 바르게살기위원회(위원장 전병섭) 200만 원
- 손재림문화유산전시관장 300만 원
- 포항중앙여자고등학교(교장 김효우) 129만3천 원
- 여성문화회관 여성자원활동센터(회장 박연희) 100만 원
- (주)천일가스 이석철 대표 300만 원
- 제일연마공업(주) 오유인 대표 1,000만 원

노송09-2(Old pine 09-2) | 2009 | 동파이프 산소 용접 | 420×230×270cm

소나무는 세월과 풍화가 만들어준, 자연스럽게 왜곡된 형태를 보여 주고 있다. 소나무는 단순한 감각적 닮은꼴 이상의 원형적 형상이나 자연의 원형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다.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나무 형상은 우주목의 상징적 의미와 겹친다. 그 자체 기념비적 인상이 강한 이 직립형상으로써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생과 사를 넘나드는 제의적이고 주술적인 염원을 반영하고 있다. 소나무 형상은 하나같이 매스를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속이 꽉 찬 양감에 바탕을 둔 전통적인 조각과는 구별된다. 노동집약적인 직조로서의 전통적인 조각의 방법을 유지하면서도, 한편으론 이와 차별화되는 탈조각의 가능성을 견지하고 있다. 형상들은 이처럼 매스를 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안과 밖이 서로 통하는 통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로부터 경계 혹은 탈경계에 대한 인식이 엿보인다.

이길래(LEE Gilrae)

경희대학교 및 동대학원 졸 | 개인전 7회 | 뜻밖의 전시회(2010) | 공간과 도시디자인 특별전(2008) | 아트파크전(2006) | 예술과 환경조형전(2004) | 마이애미 국제아트페어전(2000)

通

사통팔달

포항에서 한반도 전체가 사방팔방 빠르게 通 한다!

-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 동해중부선철도
- 울산-포항 , 포항-영덕 고속도로
- 국도대체 우회도로